

제12대 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 후보 출마의 변

윤 갑 용(1964. 9. 1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School of Visual Arts 대학원 3D애니메이션전공 졸업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Biaf 조직위원장

청주대학교 입학처장

서울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역임 등



안녕하십니까?

제12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청주대학교 교수 윤갑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본 학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자 이번 학회장 후보에 다시 한 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를 선출해주신다면 낮은 자세로 성실히 노력하여 학회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만화애니메이션학회는 전임 회장단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빛나는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유지, 종합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비아프의 비약적인 발전은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았던 “제20회 Biaf2018”의 성공적인 개최는 여러 이사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1대 본 학회 학회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원로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과 충고를 깊이 새기면서 학회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도약**”을 기치로 학회 발전을 위해 애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 본연의 대표적 행사인 학술대회는 연구 정보 공유, 연구 주제 발굴, 공동연구자 확보, 신진연구인력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만화애니메이션 연구를 위한 정보교류의 통로임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활기찬 학문적 교류와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기 학술대회를 활성화하여 학회의 앞날을 이끌어갈 대학원생, 신진작가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이 연구결과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에 유관 학회 및 산업체와 협력협회 구성원들을 초대하여 상호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소통과 화합, 상생을 지향하는 열린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오랫동안 우리 학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보았고,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제 11대 학회장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회 분과 간의 간극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원로 선생님, 학회 선배님,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제반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라며, 이를 해소하고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화합, 조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분과 간 상호 존중과 이해로써 원-원하는 학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비아프는 본 학회가 주관하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회와 비아프조직위, 부천시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비아프 대학자문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 나겠습니다. 이러한 학회 주관 페스티벌에 지역, 분과 및 세대를 망라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신진 작가와 감독들에게는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활기차고 유쾌한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학회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기타 문화콘텐츠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싱크탱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싱크탱크에서 개발된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영상진흥원, 부천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학회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미래 세대가 학회의 중심이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의 학문적 발전과 대중예술문화의 선진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결코 학회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모든 회원들과 관련 예술인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를 계승하여 **“새로운 도약”**을 기치로 **‘신명나고 유쾌한 학회’,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학회’, ‘회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학회’**로 만들겠습니다.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후배 회원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융합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윤갑용